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 년)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위령의 날 (11/02) 미사 안내

미사 시간	06:30, 10:00, 19:00
-------	---------------------

• 위령의 날에 봉헌되신 모든 연령들은 매 미사마다 존함 및 세례명으로 봉헌됩니다.

● 알 림

- 거리두기 변경에 따른 주일 미사 시간별 참석 안내
- | 주일
미사
시간 | 06:30, 10:30 | 점중 완료신자 / 대성전 (130명)
점중 미완료신자 / 강당, 식당 |
|----------------|--------------|---|
| 그 외 주일미사 | | 중전과 같은 기준 |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전교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다음 주(10월 31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성물방 신간 안내

- 신간안내 : “세상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 (성경 인물과 함께 떠나는 치유 여정)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0/24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0/31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예식의 의미?

- 말씀 전례
 -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
 - 구약성경과 사도들의 시간, 복음서 말씀이 봉독
 - 독서>화답송>복음 환호성>복음선포>강론>신앙고백>보편지향기도
- 성찬 전례
 - 구원의 업적 전체에 대한 감사와 영성체 예식
 - 사제가 축성, 기원, 성령, 청원기도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때 제정하신 축성문을 외우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2022학년도 꿀벌유치원 신입생 모집 안내

- 대 상 : 2016.1.1.~2018.12.31. 출생 유아
- 접수기간 : 우선전형 11월1일(월)~3일(수)
 {가톨릭 신자, 다자녀(자녀2명이상),한부모 가정}
 일반전형 11월16일(화)~19일(금)
- 접수방법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원서접수
- *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 참조
- 문 의 : 02-857-8545, 010-5797-8545

● 다음 주일(10/3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0월13일 ~ 10월19일)

• 교 무 금	7,057,000원
• 주일헌금	3,294,000원
• 감사헌금	박용정20만원 박주형10만원 김영균 5만원
	박갑순10만원 장원재20만원 모경숙 3만원
	정애자 5만원 김봉자 5만원 전제선10만원
	김○○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독 서	
10/24	손진희	안상록	구민서
10/31	이인옥	김덕영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24	이운영	김영배	장인홍	박승환
10/31	장인홍	최승일	이운영	최석준

모든 이를 통합하는 열린 사회

97. 우리 가까이에, 도시 한복판이나 가정 안에도 변방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이 아닌 실존적 사랑의 보편적 개방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반경을 넓혀 가서, 나와 가까이 있지만 나의 관심권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들에게 도달하려는 일상의 노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내가 속한 사회에서 버려졌거나 무시당하는 모든 고통 받는 형제자매는 실존적 외국인입니다. 그는 법적 서류상으로는 시민일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들 땅에 사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인종 차별은 쉽게 변이되고 사라지기 커녕 보이지 않게 언제나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98. 사회에서 이물체로 취급되는 “보이지 않는 망명자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소속도 참여도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을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까다롭고 고된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모든 이가 유일하고 고유한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의 형성에 점점 더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장애 때문에도 때때로 짐처럼 여겨지는” 노인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이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공동선에 남다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용기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일부 나라들은 그들을 똑같은 존엄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사랑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99. 모든 국가와 도시에서 이른바 “사회적 우애”는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의 바탕이 됩니다.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참된 사회적 우애가 참다운 보편적 개방성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국민을 너그럽게 참아 주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 다녀야만 하는 사람들의 거짓 보편주의가 아닙니다. 자국민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사회 안에 일류 계층과 이류 계층, 곧 존엄성과 권리를 더 가진 이들과 덜 가진 이들이라는 범주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이를 위한 자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100. 저는 일부 사람들이 계획하거나 규정하여 균일화와 지배와 갈취를 목적으로 이상처럼 제시한 권위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주의를 제안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일부러 일차원적 획일화를 목표로 삼고, 피상적 일치를 추구하며 모든 다름과 전통을 없애 버리려 하는” 세계화 모형이 있습니다. “마치 한 부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세계화는 각 개인과 각 민족의 독자성을 파괴합니다.” 이 거짓된 보편주의의 꿈은 세상에게서 다양한 색과 아름다움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류의 다양성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미래는 ‘단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여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류 가족은 모두 똑같이 될 의무 없이 조화와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